조선사회과학자협회

통 보



2

2019

차 례

조선사회과학자협회
KASS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사상을 틀어쥐고 주체시대를 빛내이신 탁월한 령도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으로 시대를 빛내이시고 공화국의 거창한 전변을 안아오신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시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만사를 해결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혁명은 력사의 생눈길을 헤쳐오면서도 자기의 기발에 승리만을 아로새길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로 주체시대를 빛내이신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시다.

일심단결은 주체시대를 향도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철학이다.

일찌기 일심단결은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단결이라는 사상을 밝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굳게 뭉친 불패의 통일단결로 강화발전시켜 주체시대를 위대한 단결의 시대로 빛내여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으로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로를 뚜렷이 명시하고 그 수행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총궐기시킨 거대한 정치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력사적인 진군길에서 혁명적당건설력사상 처음으로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실현한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높이 들고나가는 불패의 혁명무력, 일심단결된 전투대오가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일심단결은 필승의 무기이며 무적의 성새이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일심단결의 사상으로 살고 일심단결의 기상으로 전진하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세계반동들과 맞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주체시대를 빛내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적적인 성과들로 주체시대를 빛내이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주체시대에 세기를 주름잡으며 조국땅우에 펼쳐진 천지개벽의 희한한 현실은 결코 조건이 좋았거나 더우기 남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국주의반동들과 온갖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훼방과 고립압살책동으로 조선인민은 남들보다 더 어렵고 간고한 조건에서 오직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방식으로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모든 시련과 난관을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이겨내며 거창한 창조와 변혁으로 주체시대를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로 빛내여왔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은 조선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우고 공화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끊임없이 앙양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거창한 전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로동당시대의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당

자주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신조, 혁명방식이고 혁명과 건설에서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억척불변의 전략적로선이며 필승의 기치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가장 철저한 자주리념인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부강번영의 새 력사를 창조하였으며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며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로 향도하는 불패의 당으로 더욱 위용떨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지향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여 승리와 번영의 진로를 열어나가는 위대한 당이다.

인민이 주인이 되여 자기의 신념과 결심에 따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나라의 실정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이 조선로동당이 견지하고있는 자주로선이다.

조선로동당이 처음 자주의 기치를 들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내세웠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혼자서 자주적으로 나갈수 있겠는가고 의문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기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투철한 립장,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인민의 요구와 지향, 조선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원칙을 일관성있게 견지하여 인민의 리상에 맞는 진정한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였다.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력자강으로 풀어나가는 강위력한 혁명의 참모부이다.

자력갱생, 자력자강은 조선로동당이 혁명투쟁의 전력사적과정에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혁명적원칙이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앞에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 때마다 남을 쳐다본것이 아니라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안아왔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적대세력들의 악랄하고 끈질긴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면서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온 조선로동당의 령도는 참으로 비범한것이다.

조선인민은 당을 따라 자주의 길을 걸으면서 불사신과 같이 일떠서는 자력갱생의 창조방식, 생활방식을 터득하였으며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당당하게 살아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은 대외관계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존엄높은 당이다.

자주는 력사의 정의이고 공정한 국제관계발전의 기초이다.

자주화된 세계는 지배와 예속, 침략과 간섭이 없는 세계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세계이다.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현 세계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남의 풍에 놀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말려들어 침략의 희생물이 된 여러 나라들의 비극적인 현실은 자주적대를 세우는데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전도가 달려있다는것을 뼈저리게 보여주고있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주체조선은 존엄높은 자주의 강국으로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우뚝 솟구쳐올랐다.

세인이 인정하는바와 같이 국제정치구도에서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공화국의 위상이 뚜렷이 부각되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조선로동당의 자주정치가 안아온 력사의 필연이다.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며 지역과 세계정세발전의 주체로서의 권리와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하는 공화국의 지위가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것으로 공고화되고 조선로동당의 의지와 결심에 따라 혁명의 전진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있는것이 오늘의 긍지높은 현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앞으로도 영원히 자주의 기치높이 주체의 항로를 따라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자력갱생은 자주권과 세계평화의 담보》에 관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토론회 진행

《자력갱생은 자주권과 세계평화의 담보》에 관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토론회가 2019년 6 월 29 일 몽골의 울란바따르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사회주의조선의 발전모습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서기장, 리사들과 명예 손님들, 몽골의 각계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 등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하리쉬 굽따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20 세기 걸출한 위인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시였으며 조선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김정일**각하께서 펼치신 독창적인 선군정치가 있어 조선은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존엄떨칠수 있었다,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자체의 군력을 강화하게 한 선군정치는 세계평화의 견지에서 볼 때 자력갱생과 밀접히 결부되여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부동한 정치로선이라는것을 다시금 밝히시였다, 그이의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조선은 자기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대대로 위대한 수령들을 모시였기에 조선은 자주성이 강한 나라로 될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환경에서 살려는 진보적인류의 념원은 오직 주체사상이 현실에 구현될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김정은**각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이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실현하는 길에서 인류의 희망의 등대가 되며 모든 면에서 새로운 진보를 계속 이룩해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보급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자주성과 주권, 국제적협력》에 관한 유럽지역 주체사상토론회 진행

《자주성과 주권, 국제적협력》에 관한 유럽지역 주체사상토론회가 2019년 9월 14일 벌가리아의 수도 쏘피아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과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부리사장, 서기장, 리사들 그리고 유럽지역의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들과 각계인사들 등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축하연설들과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에드몽 쥬브의 보고에 이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유럽의 자주권실현을 위한 옳바른 기치이다》, 《유럽의 실정에 맞게 주체사상연구보급을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사회주의위업을 적극 옹호하자》, 《주체사상보급의 대를 이어나가자》를 비롯한 여러 제목의 토론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하시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을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그들은 주체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자주의 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자주적인 유럽건설의 본보기로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지역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사회적안정과 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지도적지침으로 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과 결부하여 해설론증하였다.

그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연구보급하는것은 현시기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지역의 모든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변화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불멸의 혁명사상을 널리 연구보급함으로써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의 과학성과 진리성》에 관한 북유럽지역 인터네트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신 25 돐에 즈음하여 북유럽지역 인터네트토론회 《주체의 사회주의리론의 과학성과 진리성》이 2019년 10 월 28 일부터 11 월 4 일까지의 기간에 스웨리예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홈페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고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의 전문과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 토론회와 관련한 소개글을 게재하였다.

또한 《주체적관점으로 일관된 조선식사회주의는 가장 우월하고 과학적인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는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 《과학적사회주의를 옹위하여》 등 제목의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 에스빠냐 발렌씨아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하이메 고메스 아르호나를 비롯한 여러 인사의 토론문들을 올렸다.

토론자들은 지금으로부터 25 년전 **김정일**각하께서는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좌절을 기화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날로 로골화되던 시기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였다고 하면서 절세위인의 영원불멸할 사상리론업적을 칭송하였다.

그들은 **김정일**각하께서는 불후의 저서에서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것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을 의미한다고 까밝히시고 사회주의가 일시 가슴아픈 곡절을 겪고있지만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론증하시였다고 격찬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인권옹호》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은 현 국제상황을 그대로 방불케 하며 그이의 저서는 마치 25 년전이 아니라 최근에 발표하신 로작처럼 느껴진다고 그들은 지적하였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집권당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할데 대하여 천명하신 부분을 소개하고 실로 **김정일**각하는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스승이시다, 력사는 걸출한 수령,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로 무장한 조선인민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체의 힘으로 능히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으며 그 무엇으로써도 조선식사회주의의 힘찬 전진을 막을수 없다는것을 온 세계에 과시하였다고 찬양하였다.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하면서 가장 과학적인 사회주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더욱 승승장구할것이라고 토론자들은 강조하였다.

